마태오 복음서 15장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마르 7,1-23)

1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 때로는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언로들 또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의 공동 적대자로 등장한다. 특히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 곧 마태오 복음서가 최종적으로 편집될 때, 대부분의 율법 학자들은 바리사이들이었다.[1)]

2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1) "조상들의 전통"은 구약성경의 율법을 풀이한 해설과 세세한 행동 지침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전통은 유다교의 랍삐들의 학교에서 구두로 전해오다가, 나중에 미쉬나와 탈무드로 문서화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율법과 거의 대등한 권위와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2)]
2) 식사 전후에 손을 씨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종교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3)] 본디 성전에서 전례 집행자들만 손을 씻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심 깊은 바리사이들을 통하여 열성적인 일반 대중에게도 퍼졌다.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아예 큰 물통을 만들어 놓고 몸을 씻었다.[4)]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4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5)]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6)]고 이르셨다.
5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

---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11-112쪽, 각주 1.
2) 위, 각주 3.
3) 신명 21,6-7 :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이 시냇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4) 앞, 각주 4.
5) 탈출 20,12 :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에페 5,2 :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
6) 탈출 20,17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6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1) "예물"은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라 하는데, 이는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며 성전 금고를 가리키기도 한다.[7]
2) 율법 학자들의 잘못된 법적·종교적 선언으로써, 원래 늙거나 생계가 없는 부모를 공양하는 데에 써야 할 것을 하느님께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8]

7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9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1)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잘못된 조상의 전통을 고집하고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즉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면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공양 의무도 면제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하느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2)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입술로 곧 겉으로는 하느님을 공경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고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10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1) '깨닫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잘 듣고 그럼으로써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온몸으로 새로운 순종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9]
2)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올바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이다.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7) 앞, 각주 7 참조.
8) 위, 각주 8 참조.
9) 위, 각주 12 참조.

12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13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14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10]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11]
15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16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배 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18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9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20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1)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는 관습에 대한 가르침을 '깨끗함과 더러움' 또는 '정(淨)과 부정(不淨)'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심화시키신다. 사람이 외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유다인들의 이 종교 의식적 예방 조치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을 대비시키신다. 악은 바로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가 하는 말[12] 또는 그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다.[13] 결국 사람의 깨끗함과 더러움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표출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다.[14]
2) "초목을 심으시는 하느님"은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의 표상,[15]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식물을 심으시는 표상으로 발전한다.[16]

---

10) 사도 5,38 :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11) 로마 2,19-20 :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수를 터득하였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12)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뜻한다.
13) 19절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14) 앞, 112-113쪽, 각주 13 참조.
15) 에제 19, 10-12 : 너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밭의 포도나무 같았지. 물이 많아서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튼튼한 줄기 하나가 통치자의 홀이 되었네. 점점 키가 자라서 굵은 가지들 위로 솟아 그 키와 많은 가지들 덕분에 멀리서도 보였다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분노 속에 뽑혀 땅바닥에 던져지니 샛바람에 말라 버리고 열매는 찢겨 나갔다네. 그 세차던 줄기는 말라 버리고 불에 타 버렸네.
16) 이사 60,20-22 :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고 너의 달이 사라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이제 네 애도의 날들이 다하였기 때문이다. 너의 백성은 모두 의인들로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심은 나무의 햇순이며 내 손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가 한 부족을 이루고 그들 가운데 가장 하잘것없는 이가 강대한 민족이 되리라. 나는 주님이다. 때가 되면 내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루리라.

3) ‘악덕의 목록’ 또는 ‘덕의 목록’은 당시 대중은 물론 유다교에도 널리 퍼져 있었으며,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나온다.[17] 여기에 나열된 모든 악덕이 그것을 저지르는 개인에게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패륜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해악이다.[18]

4)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마음먹기에 따라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베풀기도 한다.

5)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위생상 불결일 뿐이지, 사람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히지 않는다. 사람의 더러움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깨끗함보다 내적인 깨끗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마르 7,24-30)

21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19]

22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20]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 부르며 자비를 청한다. 곧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

23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

17) 로마 1,29-31 :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고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하고 오만한 자며, 허풍쟁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갈라 5,19-23 :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1베드 4,3 :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잔치, 폭음, 불경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18) 앞, 113쪽, 각주 18.

19) 티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북서쪽 국경 지역이다. 그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었다.

여호 13,6 :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스르폿 마임까지 이르는 산악 지방의 모든 주민, 곧 시돈인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기만 하여라.

20) 페니키아인들은 자신들을 가나안인이라고 불렀다. 가나안이라는 명칭은 역사가 흐르면서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 여러 지방 또는 종족을 가리키게 된다. 곧 옛날 이스라엘인들이 차지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운데에 살던 원주민 종족들, 예수님 시대의 페니키아 등이다(앞, 각주 20).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돌려보내다'는 '풀다, 풀어 주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자를 걱정에서 풀어 주다'라는 의미로, '청을 들어 주다'라는 뜻이다.[21]

24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5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26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22]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1)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죄인들'만 가리킬 수도 있다.[23]
2)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의 자녀들에, 이방인들은 개에 비유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특권 의식이 있었다.[24]
3) 예수님께서는 부인의 청을 선뜻 수락하지 않으심으로써,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 파견되셨지만, 여인의 청을 들어주심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이교도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리시는 것이다.[25]
4)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기를 청하였다. 마침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아지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는 주인의 상 옆에 머물러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 겸손하게 머무를 때 은혜는 풍성히 내린다.

---

21) 위, 각주 21.
22) 루카 16,21 :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23) 앞, 114쪽, 각주 22.
24) 탈출 19,5-6 :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 줄 말이다.
25) 앞, 각주 23 참조.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29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갈릴래아 호숫가로 옮겨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30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31 그리하여 말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를 목격하고 체험한 이들을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군중은 아직도 치유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깨닫지 못한다.
2)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외적인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영혼의 치유 내적인 회개에 있다.

사천 명을 먹이시다(마르 8,1-10)

32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26]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1) 군중의 배고픔을 아신 예수님의 자비심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행동하시어 군중을 앉게 하신다.[27]
2) 단지 배고픈 군중이 아니라,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군중이다.

33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28]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행하셨던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잊고 있다. 아

---

26) 마르 6,34 :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27) 앞, 각주 25 참조.
28) 2열왕 4,43 :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6,5 :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하고 물으셨다.

지고 제자들의 신앙은 영글지 못한 것이다.

34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29]
35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36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3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38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사천 명이었다.
39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배를 타고 마가단 고장으로 가셨다.

1) '조금'은 군중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뜻한다. 하지만 '일곱'은 충만하고 거룩함을 상징한다. 부족함은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2) "일곱"이라는 수는 이 빵의 기적이 지니는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 군중에게 봉사한 것은, 식탁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은 "일곱" 부제를 상기시키기도 한다.[30]
3) 군중을 측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인성'은 빵을 많게 하시는 '신성'으로 완성된다. 예수님은 참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시다.

---

29) 요한 6,9-13 :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마르 6,38-43 : 루카 9,13-17 참조).

30) 앞, 115쪽, 각주 26 참조.